

# 서귀포시 법환동 마을제 연구

김 동 섭\*

## 차 례

1. 서론
2. 조사지 개관
3. 법환동 마을제의 역사
4. 마을제의 진행과정과 특징
5. 마을민과 마을제
6. 법환동 마을제의 고유성
7. 결론

## 1. 서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거나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自然災害)였다. 물론 농경과 어로 등 생활 속에서 겪는 한계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불안정한 미래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로서 마을제는 거행되어 왔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제는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적 제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민의 단결과 협동에도 기여해 오면서 전통적 질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서 속에서 마을민들을 결속하는 하나의 장치로도 기여해 오고 있다.

〈2004 마을제 봉행 현황〉<sup>1)</sup>에 의하면 제주도내 180개 마을에서 마을제를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마을제에는 무속식 마을제와 유교식 마을제가 함께 행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현용준, 진성기, 이완중, 김동섭의 것을 살필 수 있다. 현용준<sup>2)</sup>은 제주도 유식 마을제에 대한 형성과 종류, 실태를 설명하였고, 진성기<sup>3)</sup>는 포제당과 부락제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이완중<sup>4)</sup>은 유교식 마을제와 무속식 마을제를 개관하고 축문의 실례를 들고 있으며, 김동섭<sup>5)</sup>은 마을제의 유·무속식이 상존하고 있음이 제주문화의 특징임을 살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제의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제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성들의 유교식 마을제의 고유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적 연구의 하나로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을제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지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현지조사는 2004년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의를 준비하는 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의가 봉행(奉行)되는 현장까지 참여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신앙의 다른 모습도 함께 살핌으로써 조사지의 신앙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 돕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지가 갖는 고유성을 이해하고 제의가 갖는 통시적 이해를 통한 변화의 모습도 아울러 살피고자 역사적인 검토도 아울러 시행하고

- 
- 1) 제주도청 총무과 오임수님이 제공한 자료로 무속식 마을제 32개 마을, 유교식 마을제 145개 마을에서, 기타 걸궁이 3개 마을에서 봉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현용준, 「제주도 유식 마을제」, 『석주선교수회갑기념논총』(민속학논총), 동간행위원회, 1971
  - 3) 秦聖麒, 「[祭堂과 部落祭」, 『濟州島巫俗論考』, 濟州民俗研究所, 1993.
  - 4) 李完鐘, 『濟州島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5) 김동섭, 「제주의 민속문화」, 『제주의 민속과 자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자 한다. 그리고 면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제일, 신위, 제단, 제관, 제복, 제기, 제물의 고유성을 살피고 나아가 마을민들의 마을제에 대한 인식도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를 위해 애써준 주요 제보자는 마을회장 변만순(남, 1955년생), 강권의 노인회장(남, 1930년생), 마을원로 한철웅(남, 1930년생)님이었으며, 정성과 근신(勤愼)으로 제의를 봉행하신 제관님들과 청년회, 부녀회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2. 조사지 개관

한라산을 기준으로 볼 때 조사지 서귀포시 법환동은 남쪽에 위치하여 서귀포 신시가지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일주도로 남쪽 바다에까지 이르고 있다. 동쪽 끝의 경계는 '남해'로 호근동과 접해있고, 서쪽 끝은 '두머니물'로 법환동과 접해 있다. 또한 북방으로 '양지모루' 동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바람을 막아주고 고근산과 그 뒤의 한라산이 버티어 있다. 물줄기가 '제석동산'으로부터 '망팔'까지 뻗어있어 사시사철 용천수가 시원스럽게 흐르며, '양지모루'에서 흐르는 '막숙물'<sup>6)</sup>도 좋은 곳이다. 또한 마을 앞에 '범섬'이 있어 세찬 물소리를 막아주고 있기도 하다.

한라산의 영향으로 일기변화가 심한 편이나 근해에 흐르는 난류에 의한 해양성 기후로 연중 따뜻한 편이어서, 감귤과 원예작물 생산에도 유리한 조건이 갖고 있는 편이다. 법환동의 총면적은 2,491,270㎡로 밭이 875,817㎡, 논이 141,308㎡, 과수원이 542,025㎡, 임야가 183,141㎡로 대부분 농경지로 활

6) 1374년 최영 장군이 목호(牧胡)를 토벌하면서 숙영하였던 곳이라 하여 '막숙(幕宿)'이라 부른다고 하는 곳이다. 이외도 성을 쌓았던 '軍城(군자왓)', 활쏘기를 연마했다던 '射場앞', 병기를 만들었던 '병디왓', 군사를 조련 시켰던 '오다리' 등 여러 곳에 그 때의 지명들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법환동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도 한다.

용되고 있으며, 대지가 430,593㎡, 기타가 248,954㎡로 쓰이고 있다.

물이 좋은 법환에서 논농사가 74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때 시설재배를 위해 하우스시설이 들어오면서 논농사가 없어졌다고 한다. 백중 때 물 맞으러 갈 때는 '대죽'을 갖고 갔다가 먹기도 하였는데, 이 때 강 정물, 지넷물에서 강정사람들과 씨름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 '지넷물' 지경은 밀감나무를 심고 개발을 하는 바람에 옛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현병태(남, 52)<sup>7)</sup>에 의하면 미나리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농약을 많이 쓰게되어 법환에만 자라는 '붕어'<sup>8)</sup>를 볼 수 없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그 때만 해도 6월 장마에 두꺼비를 잡아먹기 위해 나오는데 그 때 잡아서 약재로 이용하거나 한약상에게 팔기도 했다고 한다. 붕어가 나와서 울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애기들 울음소리와 같았다고도 한다. 그래서 인지 이 '붕어'는 아이들이 경기(驚氣)할 때 '매'보다 더 좋은 약재로 취급되었다고 한다. 시커먼 다른 장어들과는 달리 누런색으로 얼룩이 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1980년경만 해도 마을에는 많이 잡는 사람<sup>9)</sup>이 있었다고 한다. 썩은 섬 근처에서 많이 잡혔는데 그 때가 되면 한약장사들이 사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

서귀포에는 당 55개와 포제단 5개가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sup>10)</sup> 5개의 포제단은 법환동을 포함하여 상호동<sup>11)</sup>, 호근동<sup>12)</sup>, 신호동<sup>13)</sup>, 보목동<sup>14)</sup>에 있어 지금도 제의가 봉행되고 있다.

7) 법환마을회 수석부회장의 직을 맡아, 입제(入祭) 기간 내내 제청(祭廳)에서 생활하였다.

8) '드렁허리'를 가리키는 제주어로 동면(冬眠)을 하다가 4월경 깨어나서 나온다고 한다. 서쪽지역에서는 '선어(鱈魚)'라고도 한다. 최기철, 『우리 민물고기 백가지』, 현암사, 1994, 501~504쪽

9) 현병태에 따르면 '어만'이 삼촌하고 '천웅'이가 많이 잡았다고 한다.

10) 제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서귀포시), 서귀포시, 2000, 117쪽

11) 상호동 129번지 꼭오름 북쪽 숲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제단은 장방형의 판석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한다. 주변의 나무를 베어 내어 약 50평 정도로 마련되었었다고 한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23쪽

### 3. 법환동 마을제의 역사

마을민의 안녕을 위한 공동의 것이므로 예전부터 마을의 대표가 책임을 지고 주관하고 있다. 제복과 제기의 관리는 물론 마을회관에 마을제와 관련된 집사방 등의 기록을 보관 관리하며, 마을회장이 이를 담당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마을회장 변만순의 주도하에 4개반장의 협조로 마을제가 치러졌다.

구 분	가 구	인 구			통	반
		계	남	여		
계	989	3,098	1,518	1,580	5	29

물론 법환동의 노인회를 이끌고 있는 강권의 회장, 김주문 총무의 협조로 경로당을 제관들이 3일 정성을 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강성배님에 의하면 마음의 위안(慰安)을 위해 마을제를 치렀다. 제사지내는 것과 같은 마을이다. 지금은 기념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전에는 마음의 위안을 위해 지냈다. 병원도 없고, 교통도 불편해서 위안을 위해 정성을 드려서 마을제를 모셨다. 강순탁(남, 48, 법환동 502), 강순집(남, 48, 법환동 1102)에 의하면 마을에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4·3사건 때 피해도 별로 없었다고 믿는다고 한다. 또한 부자 마을이었기도 했는데 열심

- 
- 12) 호근동 각수바위 남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아주 비탈진 곳으로 제장의 위쪽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제단을 중심으로 동8, 서7로 15위 무사위가 함께 모셔지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28쪽
  - 13) 월라봉 동쪽 봉우리 조금 아래쪽에 있다. 비석돌 형태로 다듬은 돌을 장방형으로 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한다. 제단의 담을 별도로 두르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31쪽
  - 14) 정술내 건너에 취치한 해관정사 부근에 있다. 이 절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밀감밭이 있고, 이 밀감원 안쪽에 있는 소나무밭이 바로 포제동산이다. 제단은 시멘트 건조물로 반원형이다. 앞쪽 가로 길이는 25미터, 폭은 16미터, 높이는 60cm정도이다. 제단의 주위에 돌담이 싸여 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66쪽

히 하지 않아도 생활에서의 지장이 없게 되면서 차차 해이해지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마을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시장도 나고, 사법고시(법환초등학교 출신으로 처음)된 사람도 나고, 법무사에도 합격 등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 1) 포제 역사

윤철웅(남, 70, 법환동 431번지)에 의하면 1926년도에 마을 이사제를 행해졌다고 한다. 병인년이 1926년경이다. 강용범(康用範)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4·3사건으로 당분간 포제를 할 수가 없었다. 국민학교때 4·3사건 나서 중학교 간 후에는 밤에 초소에 보초를 썼다. 그 때 그 겨울에 민보단도 있었고 낮에는 여자들이 보초를 서고, 밤에는 남자들이 썼다.

그러나 1966년 이장을 하는 당시에는 초가가 많아서 화재 하루 8~10여 건 정도가 될 만큼 많았다. 그러던 중 마을 원로들이 찾아와서 옛날에는 마을포제를 지내야 부락이 평안하고 마을이 안정하다고 하여 해 보라고 해서 4·3이전에 하던 축문과 홀기 등을 찾아 27년만엔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병오년이 1966년인데 그 때부터 부락이 평안하고 사고도 나지 않았다. 그 당시도 마을 정포제라고 불렀다. 정월에 지내는 포제이고, 정월 첫정일에 지내는 포제여서 정포제라고 했다. 또 이사제라고도 했고, 별칭으로 포제라고도 불렀다. 1967년까지는 분명하게 되었으나 새마을운동으로 또 중단이 되었다. 예전에는 구정(舊正)을 세지도 못하게 했다. 그 때 포제를 중지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시작한 것은 1995년도이다. 이 때 지사가 옛것을 찾겠다고 해서 법환동도 다시 하게 되었다. 4·3사건 때 중지한 이후 1966년에 새로 시작한 햇수가 28년이라는 뜻이다. 28번째로 제를 올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작해서 3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76년경까지는 계속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 2) 포제대상신위명

‘이사지신신위(里社之神神位)’라는 지방(紙榜)을 작성하고 그것을 모신 다음 제의를 봉행하였다. 지방은 제청 입제 첫날 대축(大祝)이 축을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것이나, 법환동의 노인회장이 달필(達筆)이기 때문에 이번의 축문과 지방은 노인회장이 작성하였다. 제관들과 함께 지방(紙榜)과 축문(祝文)을 쓸 종이를 마름질하고 제관(祭官)들이 보는 앞에서 작성한다. 지방을 작성한 종이의 규격은 폭 65cm, 길이 21.5cm 정도였으며, 축문의 규격은 가로 42cm, 세로 30cm 정도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을민을 대표하여 제관들이 기구하는 내용을 축문에 담고 있는데, 종(從)으로 작성된 갑신년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甲申 正月 庚子朔 二十八日 丁卯 初獻官 玄用鶴  
 敢昭告于  
 里社之神赫赫明靈臨我疆域致我殷富降我遐福溫飽安逸非無其德事有不逮齊心薦誠茲遵吉丁  
 伏願明靈益洵鄉民老少感樂以成禮仁德以春布命以新年農海繁榮人材養成和合團結  
 五穀豐登掃魔掃疫防災防厄無事訟獄祝祭行事風雨平安謹以清酌牲幣脯 謹拜伏祝庶幾于神尚  
 饗

## 3) 포제동산

속칭 ‘제석동산’이라고 하는 법환동 605번지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북쪽 가까운 곳으로 비교적 높은 지대여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과수원의 한쪽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제단이 있는 곳을

'제석동산'이라고 한다. 제청이 있는 곳은 '묵골'이라고 한다.

자연석을 다듬어 장방형으로 쌓고 시멘트를 바라 마무리하였다. 그 앞에 가로 길이 1미터 가량 되는 시멘트 향석이 놓였다. 제장을 중심으로 좌우와 뒤쪽에 자연석을 1.2미터 내외의 높이로 대충 쌓아 둘러쌌다. 다시 담 바깥에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를 세우고 앞면을 제외한 전면을 비닐로 덮었다. 과수원 창고에서 전기를 끌어다 전등을 달아 두었다.

#### 4. 마을제의 진행과정과 특징

##### 1) 제일의 선정

택일에 능한 분에게 날을 보아 제일(祭日)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날에 제를 봉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날을 본 것은 설날지나서 곧바로인 25일경 부회장과 함께 갔다. 법환동에 사시는 분으로 택일을 잘하는 이방춘(남, 73)씨가 보았다. 1월달에는 좋은 날이 없어서 중정(中丁)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상정일에 하기도 하였으나 날이 좋지 않으면 중정일로 정하기도 했다.

##### 2) 제비의 충당방법모색

제비로는 돈이 없는 때였으므로 쌀로 내는 게 보통이었다. 각호마다 조금씩이라도 할당된 것은 포제일이 정해지면 그 당시 24개반의 반장이 집집마다 방문하면 형편에 맞게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작게 내는 사람도 있었다. 권유는 아니었다. 제비는 잘 모르겠다. 결혼하고 나서 참례했는데, 제관집에서 얼마를 하고, 각호에서 얼마씩 거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쉬운 것은 예전에는 각호마다 경비를 부담을 했다. 쌀, 보리, 좁쌀 등

오곡(五穀)을 조금씩이라도 정성으로 가구마다에서 내어서 했다. 그 다음에는 경제가 나아졌으므로 돈으로 천원이나 이천원 등 조금씩 내었다. 지금은 마을의 돈이 있어서 제비를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공을 들여서 마을에 재난이나 좋지 못한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때는 상(喪)이 날 때도 있다. 제미(祭米)를 받다가 돈으로 바뀐 것은 80년경부터이다. 60년대까지만 해도 곡물로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 호당으로 돈을 받았는데 500원, 1,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을회장 변만순에 의하면 제비(祭費)는 일정액을 정해 납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납부해주는 것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돈으로 내지 않았던 때에는 보리나 조 등으로 납부하였는데 정성으로 많이 내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작게 내는 집도 있었다. 이윤철(남, 47,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의하면 마을회 운영비로 새마을금고에서 4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년회 부녀회의 행사 때에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관들은 덕망이 있고 사생활이 깨끗한 분으로 엄선해서 하고 있다. 그 전에는 리세라고 해서 각출해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15년전부터 새마을 금고 비영리단체로 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돕고 있다.

### 3) 제관 선정

예전에는 씨족이 번성할 때였으므로 현씨, 이씨, 강씨, 김씨 집안이 대성을 이룬 때였다. 이 집안에서 돌아가면서 헌관을 했다. 마을회장과 개발위원들이 모여 올해는 어느 집안에서 초헌관을 할 것이 결정이 되면 집안내에서 의견을 내어서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헌관을 선정하기가 씨족 문중별로 어려웠지 선정되면 누구나 참석했다. 제관으로 뽑히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봉로, 봉향, 전작, 사준 등은 그 해에 결혼한 사람들이 했다. 결혼을 하여 성인(成人)이 되었으므로 마을제에 참가하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강성배(남, 71)에 의하면 196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때 참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처음 할 때는 봉작

(奉爵)이나 전작(奠爵)인 것 같은데 정확한 직위는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아 모르겠다.

제관이 될 수 없는 분은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린 사람, 자식을 앞세운 사람, 불치병이나 상(喪)을 만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손가락이 없다든지, 발을 저는 등 몸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제관이 될 수 없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다. 이들을 제외하고 마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회장이 정월달이 되면 제관뽑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객지로 나가거나 개인 사업을 해서 늙은이가 계속하고 있다. 13사람을 제관을 선정하여 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옛날에도 제청에 들게 되면 생깃기둥이 있는 곳에 집사방(執事傍)을 붙였다. 집사방은 대축이 작성한다. 그때 제관만 15명이었고 제관 아니고 참례한 분도 있어 19명이 참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집사방에 올라가지 않는 제관은 없었다. 전사관이 현관 유고시 현관(獻官)을 대신해서 보충하기도 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하우스 하는 분이 많고 해서 제관으로 참여가 어렵다.

제관의 선정을 7일전에 통보를 받는데 이 때부터 정성에 들어간다고 한다. 마누라와 각방을 쓰고 올레에 금줄을 매지는 않지만, 굶은 것을 보지 않고, 비린 것을 멀리하며, 상소리를 하거나 큰 소리를 치는 등 함부로 하지 않는다. 제관선정은 마을회와, 노인회와 의논해서 제관선정을 협의한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5개 반장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관의 직분을 이일전에 마을회장에 마을회관에 제관들을 소집하여 직분을 나눈다.

세면이나 샤워를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곳이 샤워실이다. 아침에 세면과 저녁에 샤워 등을 위해 그 출입구 오른쪽 벽에 가로 54.5cm, 세로 35cm정도 크기의 흰 종에 써 붙인 집사방(執事傍)을 보면 2004년 갑신년의 제관은 다음과 같다.

직책	성명	나이	비고
初獻官	현용학(玄用鶴)	67	세 번째 제관
亞獻官	강민언(康敏彦)	62	
終獻官	강방일(康邦一)	61	세 번째 제관
執禮	문석준(文錫俊)	55	
大祝	김세찬(金世贊)	62	
謁者	현용호(玄龍浩)	56	
贊者	강치화(康治和)	47	
贊引	강희섭(康喜攝)	48	
奉香	강민국(康敏國)	47	
奉爐	고권재(高權在)	42	
奉爵	강승대(康升大)	39	
奠爵	강용옥(康龍玉)	38	

예전에는 집사방을 작성할 제관의 직위에 따라 직책의 크기도 달리하여 작성한 듯하다. 초헌관(初獻官)의 직책을 제일 크게 쓴 반면 하제관(下祭官)으로 내려갈수록 직책의 간격을 작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위의 순서도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찬자(贊者), 찬인(贊引)의 순서는 물론 그 직위가 전작(奠爵) 아래로 내려가 있기도 한 것으로 보면 제관(祭官)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방일(남, 61, 농업)은 3번째로 제관으로 선정되어 제의 봉행에 참가하였으며, 올해는 종헌관이 되었다. 초행한 것은 58살때로 그때는 알자(謁者)의 직책을 맡았으며, 두 번째는 그 다음해로 전사관의 직분으로 제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의의 전승을 위해 마을회관에 보관 중인 제의 관련 봉투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제관은 다음과 같다. 1995년에는 정월 이십육일에, 96년에는 정월 12일에, 97년도에는 정월 17일에, 98년에는 정월 23일에, 98년에는 정월 24일에 제의해 봉행되었음도 살필 수 있다.

직책	1995	96	97	98	99	00	01	02	03
初獻官	고계학	강정욱	강상기	玄甲承	康學贊	고창현	강안무	김만종	김도국
亞獻官	강정욱	강상기	강학찬	康升化	邊承萬	고창희	김만중	강무성	강경준
終獻官	문병규	이길보	현갑승	金萬鐘	姜英太	강민언	현용학	김세찬	강무성
執禮	이방춘	강성배	강성배	康昌炫	康鳳來	문용숙	문용숙	김명선	강진보
大祝	강상기	강봉래	강창현	양영일	변영일	강윤익	강시민	이상철	문석준
典社官	강용후	변승만	강민언	강민언	김승무	강명도	강방일	이동춘	김세찬
謁者	김만중	이영태	김만중	이광찬	강보우	강방일	전승무	강여성	현용호
贊者	이승준	이보권	진승헌	한철수	문석준	문석준	문태관	강관준	강여성
贊引	강성배	강명도	강일현	변만순	현병태	한철수	문석준	강홍탁	강치화
奉香	강시민	김철수	강치화	강치화	이상문	이상문	강치화	이상문	강순탁
奉爐	玄承祐	강관준	변광열	강희섭	이철원	강치화	-	김철민	강민국
奉爵	康景喆	강치화	양상선	강경철	강용석	강경철	이상문	현용택	강홍탁
奠爵	康敏國	이권준	한상범	강승대	김민	한희준	이창식	-	고권재
司奠	玄用鶴	강을생	강희철	김철민	강제영	-	변만국	-	-
炊飯	李英燮	-	-	-	-	-	-	-	-

이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같은 이름이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제관이 될 수 없는 제한 규정도 문제지만, 많은 동민들이 제관으로서의 제청의 3일간의 정성을 위해 합숙하는 것을 꺼리는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면 제관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제한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자주 이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치화는 99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차례만 이름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또한 취반(炊飯)이라 하여 제청에서 제관의 식사와 제물의 장만을 담당하였던 직위(職位)에 1995년에만 있고 다음 해부터는 없는 점과 2002년부터 사준(司尊)의 직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또한 제관 선정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당해에 결혼했던 사람이 담당했던 직책이었으나 지금은 직장을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많아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 4) 제청입제금기

##### ① 제청택선정

1966년 당시 강정길 씨 대이 제청이었다. 제관(祭官)들의 정성을 위하여 마을에서 크고 깨끗한 집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깨끗한 집이라는 의미는 생리를 하는 젊은 여자들이 없는 집을 가리킨다. 이러한 집을 '전사관대'이라 칭하였으며 전사관대 부인이 제관(祭官)들의 식사는 물론 제물의 준비도 담당하였다. 또한 제청을 찾아 제관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찾는 이들의 술상에 따른 반찬 등도 혼자해야 했으므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 경로당을 제청으로 쓴 것은 1995년부터다.

##### ② 입제후 일정 및 정성

제관들이 입제하면 첫날은 금줄을 치고 제단청소를 하며, 서로의 직분을 익히는 상견례의 시간으로 보내며 오후 점심을 먹고나서 연습을 한다. 둘째 날도 연습을 한다. 마지막날은 희생과 제물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일로 바쁘는데,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서 제단(祭壇)에 직접 가서 한 번 연습을 했다고도 한다. 제관이 입제를 하면 제청밖 출입을 금했으므로 제청에서 준제관을 통해 마을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금줄은 초헌관의 책임하에 제관들이 만든다 금줄은 제석동산, 입구 대문, 조위통물, 제청입구에 금줄을 매고 수시로 준제관인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했으며 그만큼 정성을 드렸다.

강성배에 의하면 제청대에 입제했을 때 제관중 제일 어렸기 때문에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잔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한 해였기 때문에 두꺼운 새이불을 갖고 갔으며 무척 추웠던 기억도 난다고 했다. 또한 처음으로 제관을 하는 것이어서 가정에서 침떡(시루떡)을 해서 제관들에게 인사를 했던 기억도 난다라고 한다. 정성을 했던 기간이 오, 육일인지 일주일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길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도 했다. 제청내에서 삼헌관은 갓을 쓰고 정성을 드렸으며, 도복 등 제복도 각각의 제관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했다고도 한다.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자기할 것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물어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 겨우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물론 잡일 같은 것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는 앉아서 놀아도 잡담도 하지 못하고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지 함부로 하지 않았다. 종지로 윗놀이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었으나 화투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른들 앞에서는 할 수 없었다. 제청의 상방이 아니라 밖에서 했지 제청(祭廳)에서 장시간 놀 수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처럼 제청을 찾는 방문객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선별(選別)해서 왔지 많이 오지 않았다. 그 때는 계급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상의 차가 아주 심했던 때였므로 올 수 없는 사람도 많았다. 드러나는 표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신분이 차였던 시대였다. 이 신분의 벽이 허물어 진 것은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에 와서라고 한다. 그러므로 서로가 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예행연습도 마당에 나와서 했다. 제의는 그 때도 새벽녘에 올렸다고 한다. 전기는 들어왔을 때였으나 제단에서는 호롱불로 켜을 뿐이었다고 한다. 유리도 아닌 종이를 발라 만들었던 호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 때 집례(執禮)나 대축(大祝)은 보지 않고도 했을 정도로 한문을 많이 한 분들이어서 한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도 진행할 수 있었다. 대축이나 집례는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는 분들로 했다.

예전에는 제청에서의 식사도 제관이 되면 그 집안에서 제청의 도까지 날라다 주어 먹었다고 한다. 제청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제청에서의 정성이 일주일정도였으므로 제관의 식사도 집안내에서 순번을 정해서 했다고 한다. 나중에 제관의 식사를 제청에서 제공하게 된 때에도 여자분 한 사람이 밥을 하면 젊은 제관들이 상과 밥을 차려서 제관들 식사를 제공하였다. 그때만 해도 한 사람 이외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다.

며칠간 정성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을민 모두가 가질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마을 대표로 제의를 올리는 것이었으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삼일간 정성을 했다.

### ③ 입제 첫썰날

음력으로 정월 19일로 제의(祭儀) 봉행 3일 전일이다. 제관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정성을 들여온 몸이지만 이 때부터는 생활공간을 벗어나서 근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준비하여 이곳에 들어와 정성을 시작하는 날이다. 보통 아침을 먹고난 시간에 집을 나와 제청으로 입제하여야 하며, 점심부터 이곳에서 먹고 지내면서 정성을 들인다. 이 때 제관은 자기가 제청에서 사용할 이부자리를 갖고 온다. 그리고 이날은 제관의 상견례날이기도 하다. 생활공간속에서 마을 주민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제관으로 선정되면 일상공간에서의 지위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하며 인사를 한다. 지나친 언동(言動)을 삼가며 근신한다. 부년회에서는 제관들의 식사를 위해 함께 제청에 입소한다. 청년회에서는 제단청소를 하고 제단에 비닐을 설치하며 전기도 가설한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금줄을 치고 향물과 수건을 배치한다. 아헌관(亞獻官)이 기념으로 인절미를 대접하여 제관들과 제청을 찾은 모든 분들이 나누어 먹었으며, 아헌관에 즉위함을 축하하였다. 오후 5시경 전년도의 촬영비디오를 시청하였다. 오후 6시경 회로 술한잔을 하고 곧이어 저녁 식사를 하였다.

### ④ 입제 둘째날

취침시간이 그렇듯이 물론 정해진 기상 시간도 없다. 그러나 6시경에 일어나는 제관도 있었고 7시 20분경 일어나는 분도 있었다. 아침 8시경 아침식사를 하고 9시경부터 예행연습이 이루어졌다. 예행연습은 1시간가량 걸려 두 번을 하였다. 제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일과를 보냈다. 그리고 10시경에 다시 연습에 임해 1시간 가량 하였다. 11시 30분 가량이 되어 간식으로 전복을 먹고 중식으로 전복죽을 먹었다.

제청을 방문한 많은 출향인중에 서귀포시장도 있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제관들은 다시 예행연습을 하였다. 오후 3시반경에 초헌관이 축하하는 것으로 정기(빙떡) 한 구덕을 내었다. 모두가 축하하고 나누어 먹었다.

오후 6시 40분경 저녁을 먹었다.

⑤ 입제 셋짚날

어제보다 이른 시각인 6시 30분경 기상을 하였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7시 반경에 하였다. 그리고 9시 30분경 마을의 원로이며 마을제와 관련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전이장 한○○님을 만났다. 오후 1시경 중식을 하고, 청년회에서 회생을 손질하러 갔다. 그리고 메와 제물을 준비하는 분이 오셔서 제기와 제물을 준비하였다. 오후 6시경 회생으로 사용할 돼지의 목에 금줄을 쳤다. 그리고 나서 6시 반경에 저녁식사를 했다.

제물확인은 20시 40분경에 이루어졌다. 전사관이 유고한 상태였으므로 삼헌관과, 마을회장, 청년회, 원로 참관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초헌관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물건기라고 할 것은 없었으나 제단에 사용할 제물의 목록을 흰종이에 써서 확인하였으며, 확인한 제물은 왼쪽에 '○'를 표시하였다. 제물확인 대상이 되는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있었다.

- 메(좁쌀 2, 찹쌀 2, 수수쌀, 멥쌀) 각 2홉
- 회생물
- 녹포(상어)-송애기 말린 것
- 해어(옥돔) 3개(생것, 나중예)
- 육포(쇠고기) 1근(소금해서 물 빠지울 것)
- 과일(사과 5, 배 5, 귤감, 밤 반되, 대추 1홉, 밀감) 냉유지
- 채소(미나리, 생무채-무우 1개)
- 모혈 돼지피 돼지털
- 소금 1봉지
- 패백 멧지 3자3치, 옥양목 5m
- 향저(향나무 젓가락 5) 2-3만원어치
- 향 1봉
- 초 1봉
- 청주 2되-중앙시장 청주만드는 곳, 옷봉으로
- 창호지(한지 2권) - 홀기문, 축문, 지방
- 칼, 붓펜, 싸인펜, 바늘(최고 큰 것, 실)
- 금줄-조의통, 부엌, 대문, 돼지머리, 제단 대문, 하우스앞
- 향물(향+밀감잎) - 제단청소
- 슬리피
- 소지 3, 소주, 그밖에 성냥, 과도(果刀), 젓자리, 새, 제기

위와 같이 메모된 종이 위에 첨부물이 붙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단준비사항  
 비닐확인(하우스)  
 제단 주위에 제초작업  
 전기가설  
 천막(바닥에 깔 천막), 카페트 5매  
 돼지 90~100kg(실, 바늘)  
 제단 바닥에 깔 백지 10장  
 창호지  
 제복확인  
 관세물 수건 1장  
 제관 임무 부여 특히 전사관 제물확인  
 식수통 5개  
 숯  
 배석(拜席)

제물(祭物)의 확인이 끝나면 준비는 전부 끝나는 것으로, 저녁 10시경이 되어 끝이 났다. 그리고 나서 인기연속극 <대장금>을 시청하고 마지막 예행연습이 이루어졌다. 11시 05분경부터 시작된 마지막 예행연습은 16분 가량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때의 불렀던 홀기를 <서기2004년갑신정월이십팔일이사제홀기문법환마을>통해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홀기문은 워드로 작성된 것이며, 형식은 한자, 한자어의 국문토, 그리고 내용을 병기한 것으로 되었었다.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29.5cm정도로 복사용지 A4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순한문으로 했으나 그러나 다시 시작한 후부터 잘 모르므로 3년 후부터 토를 달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루에 연습을 3번씩 했다. 그러다 보면 전부 알게되므로 연습을 그렇게 했다.

갑신년정월이십팔일법환동아사의 예행연습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례, 알자, 찬인, 찬자 사배, ○알자인 현관이하 구취문의위, ○알자인축급제집사입취단단배위, ○사배축이하개사배, ○예관세위관세각취위, ○알자인현관입취위청행사 ○알자진현관지좌백유사근구청행사, ○사배현관이

하재위자개사배각취위,

행전폐례 ○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세, 집홀, ○인예신위전북향괘, 진홀, 삼상향, 헌폐, 집홀, 부복홍평신, 인강복위

행초헌례 ○알자인초헌관예준소서향립, 작주 인예신위전북향괘, 진홀, 헌작, 집홀, 부복홍평신, 퇴괘, ○대축진헌관지좌동향괘, 독축, 부복홍평신, 인강복위

행아헌례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세, 집홀 ○알자인아헌관예준소서향립, 작주, 인예신위전북향괘, 진홀, 헌작, 집홀, 부복홍평신, 인강복위

행중헌례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세, 집홀 ○알자인아헌관예준소서향립, 작주, 인예신위전북향괘, 진홀, 헌작, 집홀, 부복홍평신, 인강복위

행음복례 ○집사자예준소, 이작주복주지조진감신위전 조육, ○알자인초헌관승여음복위, 서향괘, 진홀, 집사자 북향립, 이작수헌관, 헌관수작, 음졸, 이허작수집사자, 집사자수허작, 집사자북향립, 이조수헌관, 헌관수조, 이허조수집사자, 집사자수허조, 동계외출, ○알자인헌관신위전, 북향립, 진홀, 사배, 헌관개사배

행철변두 ○대축진철변두, 사배, 헌관개사배,

행망료례 ○알자인초헌관예망료위, 서향립, 대축이비취축판급괘강자서계치어감가료,

○알자진헌관지좌백례필, 수인헌관출, 대축급제집사구취단남배위, 사배, 대축이하개사배, 이차출, 마지막으로 집례, 알자, 찬인, 찬자 사배

## 5) 제물준비

제미(祭米)나 제비(祭費)를 받아 이장(里長)이 관리하면서 제물을 구입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한다. 제의(祭儀)에 필요한 물자는 부락의 '급사'가 사거나 구하여서 전사관에게 넘겨주었다. 예전에는 '급사'를 '주사' 또는 '하인'이라고도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보통 이들은 1년간을 기간으로 운영되며 마을 이장이 부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일년에 두 번 급료를 받았는데, 쌀이나 보리로 받았다. 가을에는 서숙, 여름에는 보리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 법환동에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두 분있었다고 한다.

희생(犧牲)은 돼지로 사용하였다. 희생(犧牲)으로 사용할 돼지는 마을

에서 파는 집을 물색해서 그 집에 것을 샀다. 대부분 돈에 맞도록 해서 구입했다. 15관에서 20관 범위내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희생의 손질은 마을에서 일을 보는 분들이 희생에 손봤다. 손보는 곳은 깨끗하고 편평한 '두모니물', '씨래' 라는 곳 두곳에서 작업했다. 주로 '두모니물' 이 좋았다. 그 당시는 물을 티겨서 털을 뽑아서 사용했다. 보통 불로 끄물려 잡는데, 희생으로 사용하는 것은 퇴하여 전부 뽑았다. 뽑을 수 없는 것은 면도칼로 밀었다. 면도기가 몇 백개가 든다. 2003년도에도 그랬다고 한다. 모혈도 제물로 사용했으며, 올 해는 양돈장에서 손을 보아 제물로 썼다.

그리고 '메'를 치고 채소와 과일 등을 준비하기 위해 취반(炊飯)이라 하여 이영변(李英變, 여, 84)님이 오셔서 준비해 주셨다. 1995년 다시 제를 시작하면서 오시기 시작하여 지금껏 다니고 계신다. 여자분이긴 하지만 생리가 끝난 깨끗한 분으로 경험이 많은 분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조위통'에서 길어온 물로 제기(祭器)를 닦고, 과일을 씻어 준비했으며, 청저(靑菹)와 근저(芹菹)의 제물도 준비하여 엮었다. 메는 10시 전후해서 친다. 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기에 넣고 찌서 해야 하므로 기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두동미(西頭東尾)로 희생을 올린다. 다는 아니지만 몇 마을에서도 이렇게 서두동미(西頭東尾)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부락이 생긴 근거가 서쪽이 근거지 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을 숭배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본다.

삼달리는 목축(牧畜)을 하는 곳이라 8월 추석을 맞으면서 추렴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처음 잡는 추렴에서 제수(祭需)로 준비하여 제를 모신다. 그런 것을 보면 8월 추석부터 마을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법환동보다도 정성이 많이 들이는 마을에 속하는 편이라고 한다.

## 6) 제복 및 제기관리

제복(祭服)은 평상 집에서 입었던 두루마기를 입고 생활하다가, 집에서

입었던 도복을 준비했다가 입고 제를 모셨다. 청의(靑衣)는 자기 집에서 풀이나 다림질 등 준비를 했다가 제단에 갖고 가 입고 제를 모셨다. 그러나 1995년 제복(祭服)과 제기(祭器)는 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마을회장의 책임으로 마을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복은 청의(靑衣)라고 하는 옥색 도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10년 전쯤에 만든 것으로 행경(行徑)과 유건(儒巾)이 함께 준비되었으며, 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홀(笏)을 함께 준비하였다. 사용하고 나면 다음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세탁을 하여둔다. 청의(靑衣)는 옥색 옥양목을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팔길이 43.5cm, 폭51.5cm, 길이 117cm, 아래폭 90cm정도였다. 또한 고름의 경우 폭은 6.5cm정도이나 긴 것은 97cm, 짧은 쪽은 87cm정도였으며, 안고름의 경우 길이 26cm의 것이 폭 1.3cm정도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유건의 경우 폭이 15cm, 길이 25cm 정도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홀은 위가 조금 넓고 아래가 조금 좁은 것으로 길이는 31cm정도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예전에 제기(祭器)는 제청택에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95년 다시 시작하면서 마을회에 준비한 스테인레스 제품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높이가 34cm, 비석의 가침석과 같은 윗부분이 폭이 15cm, 높이가 4cm였다. 비신과 같이 비상을 붙이는 부분은 폭이 13cm, 길이 24cm로 두 개의 여단이 문이 설치되었다. 비석의 농대와 같은 형태로 받침은 폭 15cm, 두께 2cm의 것이 높이 2cm의 받침 4개의 받쳐 세워져 있다. 잔대(盞臺)는 직경 13.5cm의 잔받침이 높이 8cm의 받침에 받쳐있다. 받침의 저경은 6.5cm였다. 잔(盞)은 직경 7.5cm 높이 3.5cm의 이용되고 있다. 음복례(飲福禮)를 할 때 초헌관이 먹는 안주를 자르기 위해 칼이 사용되고 있는데 길이 32.5cm 날의 폭 5cm 자루 길이 12cm, 자루 직경 2.3cm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쟁반은 직경 21.5, 높이 2.5cm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향함(香盒)은 직경 7.5cm높이 2cm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향로(香爐)는 높이 13.5cm, 직경 11.5cm, 대의 높이 7cm의 것이 이용되고 있다. 망료례를 치를 때 분축할 것을 담아 가는 '광주리'는 플라스틱제품으로 가로 세로 26.5cm, 높

이 6.5cm의 밑변의 가로 세로가 16.5cm의 것이 쓰이고 있다.

## 7) 제의(祭儀) 봉행

한복(韓服)에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차량을 이용해 제단으로 이동한다. 제단 입구에 매었던 금줄을 벗기고 제관이 들어서면 안쪽 입구에 향물이 준비되어 있다. 향물에 손을 고 다시 금줄을 걷어낸 다음 감굴 나무 사이로 입장한다. 청년회에서 콘테이너를 이용해 제물과 제기, 배석 등을 담아 옮기기 위해 이동한다. 제관들이 제단에 설치된 하우스의 금줄도 벗겨내고 들어가면 청년회에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와 천막을 깔고 배석(拜席)을 마련한다. 일부 청년들과 참례자들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불을 피우기도 한다. 제관들은 마을회에서 준비한 청의를 갈아입고 헌관들은 개인별로 준비한 도복을 갖추어 입는다.

### ○ 제물진설

청의(靑衣)를 갖추어 입은 집례(執禮)는 진설을 하는데 젊은 제관들이 돕는다. 제일 앞쪽에 향상을 두고 그 앞으로 삼잔을 놓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회생을 진설하는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회생을 서두동미(西頭東尾)하여 진설한다. 그 앞에 폐백(幣帛)을 올리고 그 앞에 과일을 진설하는데 좌측부터 밀감, 배, 사과, 꽃감, 밤대추의 쟁반을 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 미나래채와 무채를 놓고 그 좌측에 생것의 쇠고기와 옥돔을 올리고 우측에 상어고기와 소고기를 올린다. 제일 뒤쪽에 흐린좁쌀, 모인좁쌀, 수수, 찹쌀로 만든 매를 올리고 제일 중앙 뒤쪽으로 지방을 붙인 지방들을 올린다. 5분 정도 걸려 진설(陳設)을 마쳤다.

제단내에서 제관들은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므로 그 앞에서는 일체의 말을 삼가고, 군소리도 전혀 하지 않는다.

### ① 제의 시작

“甲申年正月二十八日 法環洞 里社祭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執禮, 謁者, 贊引, 贊者 四拜를 먼저한다. 그리고 나서 흘기를

부른다.

○謁者引獻官以下俱就門外位, ○斡者引祝及諸執事入就檀南拜位, ○四拜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盥洗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請行事 ○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 ○四拜獻官以下在位者皆四拜各就位,

② 전폐례(奠幣禮)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瓊忽, 盥洗, 執笏, ○引詣神位前北向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伏位

③ 초헌례(初獻禮)〈고축(告祝)포함〉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詣樽所西向位, 酌酒 引詣神位前北向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退跪, ○大祝進獻官之左東向跪, 讀祝, 俯伏興平身, 引降伏位

④ 아헌례(亞獻禮)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 搯笏, 盥洗, ○執笏引詣 樽所 西向位, 酌酒, 引詣神位前北向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伏位

⑤ 종헌례(終獻禮)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洗, ○執笏引詣 樽所 西向位,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爵, 執笏, 俯伏興平身, 引降伏位

⑥ 음복례(飲福禮)

行飲福禮 ○執事者詣 樽所以 酌酒福酒持俎 進減神位前俎肉, ○謁者引初獻官升詣飲福位, 西向跪, 搯笏, 執事者 北向立, 以酌授獻官, 獻官受酌, 飲卒, 以授 執事者, 執事者受虛酌, 執事者北向立,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 執事者, 執事者受俎, 東階外出, ○謁者引獻官神位前, 北向立, 搯笏, 四拜, 獻官皆四拜

⑦ 철변두(徹邊豆)

徹邊豆 ○ 大祝進徹邊豆, 四拜, 獻官皆四拜,

⑧ 망료례(望燎禮)

行望燎禮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西向立, 大祝以篚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可燎,

### ㉑ 철상(撤床)

○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大祝及諸執事俱就壇南拜位，四拜，大祝以下皆四拜，以次出， 마지막으로 執禮，謁者，贊人，贊者 四拜를 부르고 끝냈다.

## 8) 음복, 분육과 결산

제의(祭儀)를 시작하여 30분 정도가 지나면 제의(祭儀)가 끝난다. 제관들 중 헌관(獻官)들은 도복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제단(祭壇)에 올렸던 잔(盞)으로 음복(飲福)하지만 다른 제관들은 제청에 와서 음복을 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추워서 할 수 없었으므로 제청에 와서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했다. 그리고 나서 철상을 한다. 제물과 제기를 갖고 온 것과 같이 콘테이너에 담아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옮겨온다. 제관들은 제청으로 돌아와 제복을 갈아입는다. 제청으로 돌아온 제관들은 청의(靑衣)인 도복(道服)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 입는 등 퇴청(退廳) 준비를 한다. 이 때가 새벽 한시경이다.

예전에는 술이 귀해 젊은 제관들에게는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제주로 청주를 쓴 것으로 기억한다. 청주(淸酒)는 따르기 좋도록 주전자나 주병에 넣어 이용했다. 주병(酒瓶)에 담아 보관할 때 '새'로 뚜껑을 막았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음복을 마치면 새벽녘이었는데 그 때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동안 예전에는 삶아서 분육을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생채 분육을 하여 제관(祭官)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제관 몫으로 우선 분육을 하고 나서 남은 것으로 삶아 음복을 했는데, 분육도 조금 씩씩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청년회 회원이나 젊은 제관이 나와 분육을 하면 마을회장과 집례는 결산 준비를 한다.

그러는 동안 마을회장과 부회장은 방명록과 회사금 장부를 중심으로 입출금 자료를 정리하고 결산에 부의할 자료를 만든다. 준비가 다되면 결

산내용을 집례에게 준다. 상(床)을 중심으로 제관과 참례자 전부가 자리하게 되면 마을부회장의 사회로 결산회가 시작된다. 초헌관님의 인사말씀, 마을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집례가 예산의 입출금내역을 보고한다. 그리고 참가한 제관이나 참례자 전부에게 질문과 의의에 대해 묻는다. 없다고 하면 결산보고회가 전부 마치게 된다. 예전에는 제미를 '서숙'으로나 '보리'로 내었으므로 남는 것이 없어 전부 소용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고 한다.

제청(祭廳)에 대기하면서 제청을 청소를 하던 부녀회원들이 국수를 끓여서 대접한다.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도 함께 올리며 술을 한잔씩 한다. 여러번 술잔이 오고가면서 서서히 마을제는 끝이 난다. 모두가 끝난 시간이 2시 30분경이었다. 다른때 같으면 4시경이었는데, 올해는 빨리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

## 5. 마을민과 마을제

마을민이 합심하여 제의를 치른다. 마을내 자생단체로 노인회와 청년회, 부인회가 합심하여 마을제 봉행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민들은 제의 봉행에 협조하거나 제관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제청을 찾아 제관들을 격려한다. 그리고 그곳에 마련된 방명록(芳名錄)을 작성하고 회사금(喜捨金)을 내고 있다.

### 1) 노인회의 역할

강권익(남, 75)에 의하면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이 제관으로 참석을 하므로 별다른 지원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로당을 제청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입제 정성 기간 동안에는 경로당의 출입을 삼간다.

## 2) 청년회의 역할

강성열(남, 38) 청년회장에 의하면 제단(祭壇)을 청소하고 제단에 하우스와 전기 시설을 점검하는 등 마을회장과 함께 분주하고 바쁘게 마을제를 치르고 있다고 한다. 물론 회원들중에는 제관으로 참여하여 마을제 봉행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여하고 있지만, 희생을 손질하여 제물로 장만하고, 제의 후에는 분육을 담당하는 등, 힘들고 어설픈 일들을 나서는 행하며 마을제 봉행에 협조하고 있다.

## 3) 부녀회의 역할

김양희(여, 40) 부녀회장에 의하면 제청(祭廳)에서의 제관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제청 출입을 제한 받으면서 정성을 드리는 제관들을 위해 식사는 물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준다. 그리고 생리하는 젊은 여인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며, 제청 내에서도 주방(廚房)을 중심으로 행동 구역을 제한함으로써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한다.

# 6. 법환동 마을제의 고유성

마을제를 지내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한다던가 훌륭한 인물이 나지 않는 등 마을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마을민이 법환동민들이다. 그들이 봉행하는 마을제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록에서 보이듯 최소한 병인(丙寅:1926으로 추정)년부터는 법환동에서 마을제가 열렸으며, 이사지신(里社之神) 한위를 제석동산에서 모시고 봉행되었던 것이다. 둘째, 제일(祭日)은 날을 보는 분에게 의뢰해 택

일하여 봉행드리나 보통은 상정(上丁) 혹은 중정일(中丁日)을 정해진다. 셋째, 제미(祭米)는 일정량을 정해 각출(各出)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민의 형편에 따라 보리, 서숙 등을 내어 치르었다가, 80년대 이후 돈으로 내기도 하였다. 넷째, 제관의 선정은 제의를 주관하는 마을회장이 대성(大姓)을 이루는 집안에 헌관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며, 그해에 결혼한 사람은 성인(成人)이 된 책무로 참가하여 봉사하였다. 지금은 제관이 선정이 어려워 몇 해를 거둬 봉사하는 분도 있는 형편이다. 제청은 제석동산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경로당을 제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례정성을 드렸다고도 하나 60년만 해도 삼일정성을 드리고 제를 봉행했다. 입제 첫날 제단을 청소하고 금줄을 치면 제청내에서 생활하며 제의 연습에 몰두한다. 다섯째, 제물(祭物)은 마을 일을 맡아보던 급사가 구입 등을 통해 준비해 전사관에게 넘겨주면 제청내에서 준비하여 봉행하였다. 그리고 제복(祭服)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것을 제관이 각자 준비해와 봉행하였고 제기도 제청덕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1995년 다시 마을 제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마을회의 것을 이용한다. 여섯째, 집례의 홀기에 따라 제의가 이루어지나, 많은 부분 알자(謁者)의 행동을 축소함으로써 제관들이 직접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일곱째, 음복은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삼헌관(三獻官) 졸작(卒酌)과 제청에서 이루어지는 결산 음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는 부녀회원들의 국수를 준비하여 대접하며 분육을 받고 제관들을 퇴청을 함으로써 제의 봉행이 끝난다.

제물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희생(犧牲)이 쓰이고 있다. 이것의 진설법이 일반 제사에서 동두서미(東頭西尾)가 아니라, 서두동미(西頭東尾)로 진설함은 마을 형성에서 차지하는 서쪽의 중요함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무남저를 향나무로 사용함이 '새'로 쓰는 지역과 구분되며 제의중 헌례(獻禮)에서 삼헌삼작(三獻三酌)으로 드리는 것이 단헌단작(單獻單酌)으로 드리는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법을 보이기도 한다.

## 7. 결론

마을제의 명칭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록에는 정포제(丁 礮祭), 이사제(里社祭)라고 하였으나, 마을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정포제(正 礮祭)라고 한다. 정포제(丁 礮祭)라는 명칭은 정일(丁日)에 행해지는 포제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사제는 마을제의 한자씩 표기로 법환동이 행정단위상 리였을 때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월(正月)하는 포제라는 의미로 정포제(正 礮祭)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상신위(神位)의 명칭이 이사지신(里社之神)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이는 몇 번의 마을제 봉행의 단절에서 기인된 것으로 계속성의 상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줄을 물통, 제청, 제단 등 마을제 봉행에 꼭 필요한 곳에 쳐서 부정함을 방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의(祭儀)에 소용되는 일체의 물을 '조위통' 물통에서 길어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입제 삼일간 10번 이라는 철저한 예행 연습을 통해 제의 봉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민의 참여와 역할분담 및 회사금(喜捨金)은 마을제 봉행에 밑거름이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제물의 진설에서도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 희생을 서두동미(西頭東尾)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법환동에서도 어려웠던 시절 삶의 한계를 생활의 일부로 갖고 살았던 시절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그 자체가 생활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한다. 특히 정초에 행해졌던 마을제는 마을민이 새해에 처음 맞는 제의(祭儀)로서 일년간 마음의 위안(慰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해졌던 의례(儀禮)였음을 알게 한다.

〈참고문헌〉

- 金東燮, 『兎山堂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 文武秉, 『濟州道堂信仰研究』, 濟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3.
- 文武秉외,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 이두현외, 『부락제당』(민속자료조사보고서29), 문화재관리국, 1969.
- 이완중, 『제주도 마을제에 대한 고찰』, 제주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5.
- 이재필외, 『산간신앙Ⅱ』(경북, 경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이재필외, 『산간신앙Ⅲ』(전북, 전남, 제주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제주대학교 국문학과외, 『제주도부락지』(1~4),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0.
-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시의 향토민속』, 제주시, 1992.
- 천진기외, 『산간신앙 -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 최기철, 『우리 민물고기 백가지』, 현암사, 1994.
- 최승순, 「동계축문의 형식고」, 『한국민속학』(9), 민속학회, 1976.
- 표인주, 『전남촌제의 축문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 玄容駿外,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文化財管理局, 1974.
- 이원옥외, 『법환향토지』, 법환마을회,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국립민속박물관.
- 기타 국민학교 발간 향토지, 일제시대 보고서, 인터넷 '제주의 마을' 등.